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5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21일 (음력 1월 6일) 수요일

## ‘풍전등화’ 금호타이어, 오는 26일 운명 결정



‘풍전등화’ 처지가 된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단 이사회가 오는 26일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조건부 채권만기 연장 시한인 오는 26일까지 노사 간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안이

미련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조 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조건부로 1년 연장하면서 오는 26일까지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지구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 산업은행 주축으로 채권단 이사회 소집 합의안 도출 실패 시 법정관리 돌입 전망

하지만 노조는 총임금 30%(968억원 규모) 삭감, 191명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지구안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한치의 양보 없는 태치를 이어가고 있다.

채권단 이사회 소집은 최후통첩 시한인 26일까지 노사 간 경영정상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사측은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광주공장 별관 회의실에서 2016년 단체교섭 4차 본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앞으로 남은 8일 동안 노사 간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앞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희망퇴직자 모집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말 사무직 10명에 이어 지난 6일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 생산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 모집 마감 결과 당초 계획한 191명에 한참 못 미치는 30명이 최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26일 전까지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한 지구계획안 합의안이 도출돼야 채권단과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차입금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노조의 대응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춘성 기자



### 질책?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0일 청와대 좌파(경제) 참모들은 실물 경제를 다뤄본 적 없이 책상에 앉아 일에만 떠들던 사람들이라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참모들이라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공부모임인 열린토론, 마태 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좌파성향 참모들 중심으로 국정을 끌어가다보니 우리나라 미래가 매우 암울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고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외교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고, 사회 분야에서는 국민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집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인사들의 숙제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 사진 = 뉴시스



### 38주년 5·18행사위 내달 6일 출범식

‘보이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슬로건

38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을 확정하고 오는 3월 6일 출범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20일 5·18행사위에 따르면 오는 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서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은 38주년 슬로건·사업기조·주요 기념행사 해설,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출범식에 앞서 민주묘

지와 옛 망월동 묘역도 참배한다.

행사위는 38주년 기념행사 슬로건으로 ‘보이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을 최종 확정했다.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오월의 진실을 우리의 힘으로 밝혀내 모두에게 알려야 하고, 오월에서 통일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슬로건 공모에는 모두 515건이 접수됐다. 행사위는 이 외에 우수 슬로건으로 10편을 선정했다.

최남규 기자

### 2017년 인구 광주·전남·전북 감소하고 제주 늘고

2017년 광주와 전남, 전북은 인구가 감소한 반면 제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인구 순이동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총 1만 8371명이 순유출됐다.

지역별로 광주 8118명, 전남 3047명, 전북 7206명이 순유출된 반면 제주는 1만 406명이 순유입됐다.

광공업 생산액은 광주가 금속가공제품·기타 기계장비 등의 증가로 3.2% 증가했고 전남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감소로 3.8% 줄었다. 전북은 자동차 및 트레일 등 증가로 3.4% 증가했고, 제주는 비금속 광물 공기조절 공업 등 호조로 4.9% 늘었다.

취업자 수는 광주 13만 9000명, 제주 19만 4000명이 증가한 반면 전남 7만 5000명, 전북 19만 7000명이 감소했다.

### ‘겨울 한파’ 전남지역 농작물 피해 속출

수확량 감소·품질저하 우려

겨울 한파로 전남지역 농작물 생육이 부진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확량 감소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울릉도 전남지역 월동기(1월 중순 ~ 2월 상순) 최저 극기온은 영하 11.5~영하 10.0도를 나타냈다. 평균기온은 0.4도로 평년 1.4도보다 1도 정도 낮았고 최저평균기온도 영하 3.3도로 평년 영하 2.1도보다 1.2도가 낮았다.

이처럼 한파가 몰아치면서 보리와 밀 등 맥류의 경우 전량 순천 50%, 영광·장성의 20% 면적에서 잎이 말라 죽는 고엽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맥류 재배 면적은 1만 5572ha로 전국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양파도 극조생 및 조생종 등 30~40%가 지속된 한파로 고사해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마늘은 고온과 신안에서 각각 5%, 1%의 동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해빙기 배수불량으로 저온기 습해와 동해가 동시발생이 우려된



다.

재배면적 804ha 규모(전국의 83%)인 유지도 낙엽 피해율이 50%에 달하고 있다.

유지는 가뭄까지 겹쳐 낙엽피해율이 80%까지 예상된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동해 피해 대응 대책 강구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맥류와 마늘, 양파 등은 웃거름을 줘 생육촉진을 유도하고 유지는 전정시기를 늦춰 착과량을 조절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광주형

##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